

시각적 판단에 의한 얼굴유형 분류와 계측 특성 연구

文 南 嬾

전남대학교 가정대학 의류학과 강사

A Study on Women's Face Types Classification by Visual Distinction and Difference from the Measurement

Namwon Moon

Dept. of Clothing & Textiles, College of Home Economics,
Chonnam National University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classify women's face types by visual distinction and to analyze the measurement of face types. A survey was conducted by subjects of 167 women's college students in Kwangju City and Chonnam area.

Data were analyzed by Frequencies, Mean, one way ANOVA and Duncan's Multiple Range Test.

The major results were as followed:

- Women's face types were classified by 7 types and there were oblong shape(28.3%), egg shape(25.7%), round shape(23.9%), square shape(12.4%), inverted triangle shape(5.3%), diamond shape(3.5%), triangle shape(0.8%) in the subjects.
- From the measurements of the women's face, index of face length to face breadth was 1.38, it means that the index was different from the other references. And the lower face length was longer than the upper and the middle face lengths.
- Differences From those measurements like forehead breadth, face length / bizigion breath($p < .001$), bizigion breadth, bignathion slopper, stature($p < .01$) and trichion breadth, trigion-menton length($p < .05$) were significant in the classified face types.

I. 서 론

얼굴은 개인의 특징을 나타내주는 신체의 일부이며 타인에게 맨 먼저 지각되고 흥미의 초점이 된다. 또한 형태적 측면에서 얼굴은 성별이나 나이, 종족은 물론, 한 시대나 문화가 제시한 미의 기준에 대한 정보를 알려주기도 한다.

따라서 얼굴에 가지는 관심과 흥미는 관점에

따라 다양하다. 사회심리학적 측면에서는 신체적 매력과 사회문화와의 관계에서 얼굴을 포함한 외모가 연구의 요인으로 다루어지고 있다. 즉, 사회적 맥락에서 외모가 지니는 비중이나 얼굴에 대한 미적 기준의 공통성 연구 등이다¹⁾. 또한 인류학적, 성형학적 측면에서 한국인의 얼굴에 대하여 정량적 접근을 통한 일련의 연구 결과를 집적한 것을 볼 수 있으며^{2~6)} 얼굴을 중심으로 미의 추구를 다루는 미용학에서도 얼굴을 보다 매

력으로 보이도록 얼굴형이나 세부 각각의 형태적 특징, 머리카락이나 화장과 같은 얼굴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중심으로 다루어지고 있다^{7,8)}. 복식학의 측면에서도 디자인 결과가 확인되는 얼굴에 대하여, 복식과 관련한 영향요인을 중심으로 연구가 진행되어오고 있다. 특히 얼굴의 매력성,⁹⁻¹¹⁾ 얼굴 이미지,¹²⁾ 얼굴색이나 머리스타일¹³⁾, 얼굴형이나 안면의 형태적 특성¹⁴⁾ 등이 중점적으로 다루어져 왔다.

얼굴의 다양한 요인 중에서도 얼굴형은, 의복의 디자인 요소와 관련으로 인해 얼굴형이 분류되고 분류된 유형과 의복이 논의되고 있다. 그러나 그 분류내용과 분류기준은 문헌마다 달라서 체계적 절차에 의한 구체적이고 경험적인 연구가 필요한 실정이다.

따라서 복식의장의 결과를 확인할 수 있고 의복의 형태적 요인과 관련성이 깊은 얼굴형을 연구의 주요 요인으로 선정하여, 그 유형을 분류하고 유형별 특징을 밝히고자 한다. 구체적으로는 성인여성을 대상으로 하여, 시각적으로 얼굴유형을 분류하고, 각 얼굴형의 분포를 밝히고자 한다. 또한 얼굴부위를 계측하여 계측 특성을 파악하며 분류된 얼굴형간의 계측치의 차이를 알아보고, 문헌에서의 분류기준이 계측치에 의한 차이로 설명되는지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한다.

II. 이론적 배경

얼굴의 각 특성에 대해 중점적으로 논의되는 부위나 내용은 연구분야에 따라 다르지만 복식의 장 분야에서 주로 관심을 갖는 얼굴요소는 얼굴형이다.

이상적인 얼굴형은 시대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구체적인 예를 살펴보면, 1890년대에는 둥근 얼굴과 경사진 어깨가 미의 기준이었고 20세기초에는 좁은 어깨와 뾰족한 얼굴이 선호되었다. 그 후 1950년대에는 작고 단정한 어깨와 계란형의 얼굴이 패션모델이 지녀야 하는 신체조건이었고¹⁵⁾ 현재까지 여성의 이상적인 얼굴형은 계란형으로 간주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여성들이 이상적이라 여겨지는 얼굴형을 지니고 있지 않기 때문에 헤어스타일, 메이크업, 혹은 성형수술 등을

통해 이상적인 얼굴윤곽을 얻고자 노력하고 있다.

사람들의 얼굴형은 실제로 개인마다 다르다고 할 수 있으나 연구자들은 얼굴형을 몇 개의 유형으로 분류해 왔으며 얼굴형을 분류하는 기준과 분류된 유형은 연구분야와 연구자에 따라 다소 달랐다.

Davis¹⁶⁾는 얼굴형을 계란형(oval) 정사각형(square), 둥근형(round), 삼각형(triangular), 역삼각형(inverted triangle), 마름모형(diamond), 직사각형(rectangular)의 7가지로 분류하여 각 유형에 대한 시각적 특징을 설명하였다.

木曾山力¹⁷⁾는 얼굴형을 계란(卵)형(oval face), 삼각형(inverted triangle face), 사각형(square face)의 세 유형으로 대별하고, 다시 계란형에는 계란형과 원형, 삼각형에는 마름모형과 역삼각형을, 사각형에는 네모형과 삼각형을 포함시켜 총 6가지 얼굴형으로 분류하였으며, 그 중 계란형을 이상형이라고 하였다.

Tate¹⁸⁾는 얼굴형을 계란형(oval), 사각형(square), 둥근형(round), 삼각형(triangular)의 4가지로 분류하였으며, 石原久代 등¹⁹⁾은 안면의 형태적 요소를 개성을 표현하는 하나의 요인으로 보고 대학생의 안면사진을 분석하였다. 그는 사진에서 각 얼굴부위를 간접계측한 후, 그 표준편차를 기준으로 얼굴형을 유형화하였으며 각(角)형, 원(圓)형, 능(麓)형, 난(卵)형의 네 종류로 분류하였다.

미용학 분야에서도 주요 관심의 한 부분이 얼굴형이라고 할 수 있으며 화장이나 머리스타일의 변화를 적용하여 당시의 미의 기준에 이르게 한다. 이해성²⁰⁾은 각 얼굴유형의 특징을 상안·중안·하안의 세 부분의 상대적 넓이를 비교하므로써 설명하였다. 예컨대, 직사각형은 상안, 중안, 하안의 길이가 같아 보이고 수평적인 헤어라인과 돌출되어 각진 양턱을 지닌 얼굴형이라 하였고, 둥근형은 중안부분이 수평 방향으로 넓고 상안과 하안은 비슷하며 이마의 헤어라인이 둥글고 턱은 부드러운 곡선을 이루고 얼굴길이 짧아 폭과 길이가 거의 같다고 하였다. 타원형의 경우, 중안 부분이 가장 넓고 상안이 중간이고 하안이 가장 좁은 넓이를 지니며 이마의 헤어라인은 등

글고 턱은 좁고 가름하여 곡선적이라 하였고, 사각형은 직사각형처럼 상안, 중안, 하안 길이의 비와 헤어라인은 비슷하나 둥근형과 같이 길이와 넓이가 같다고 하였다. 삼각형의 얼굴은 상안이 넓고 하안이 좁은 것이 특징이고 헤어라인은 수평이며 턱끝이 좁고, 육각형은 중앙부분이 넓고 상안과 하안은 같은 넓이이며 헤어라인은 수평적이고 턱은 각져 있다고 하였다. 다이아몬드형은 중앙부분이 넓고 튀어나와 보이며 헤어라인은 이마 시작선 부분이 뾰족하고 넓으며 얼굴의 넓이에 비해 길이가 긴 편이고, 서양배형은 하안 부분이 넓고 중앙, 상안의 순으로 좁으며, 헤어라인이 뾰족하거나 수평, 혹은 곡선이고 턱은 곡선적이라고 하였다.

김경순²¹⁾도 얼굴형의 수정을 위한 메이크업의 방법을 제시하였다. 얼굴형을 계란형, 장방형, 둥근형, 역삼각형, 삼각형, 사각형, 마름모형의 7유형으로 분류하였다. 그는 7가지 유형의 얼굴형 중 계란형이 표준적인 미인형으로 메이크업의 기준형이 되고 모든 분위기의 연출이 가능한 형이지만 경우에 따라 나이 들어 보일 수 있다고 하였다. 장방형은 전체적으로 길어 보이는 형으로 젊고 발달한 느낌보다는 여성스럽고 성숙한 느낌을 주는 얼굴형이라고 하였다. 둥근형은 둥글고 통통한 얼굴로 귀엽고 어려 보이는 반면 둔해 보일 수도 있는 단점을 지닌다고 하였다. 역삼각형은

이마의 가로 넓이가 턱의 넓이보다 넓은 얼굴형으로 가냘퍼 보이고 예리한 느낌을 주는 얼굴형이라고 하였다. 또한 삼각형은 볼의 아래 부분이 넓어 의지력이 강하고 고집스러워 보이는 형이기 때문에 뺨에서 턱까지의 대각선으로 느껴지는 메이컵으로 처리할 것을 권하고 있다. 사각형의 얼굴은 얼굴의 폭과 길이가 비슷하고 하악이 튀어나온 형으로 우직하며 굳세고 강인한 이미지를 주어 신뢰감이 가는 형이기 때문에 부드러운 이미지를 줄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하였다. 마름모형은 관골궁이 튀어나와 이마와 하악이 관골궁보다 좁아보이는 형으로 마른 얼굴에서 볼 수 있는 형이며 예리하고 강하며 신경질적이고 날카로운 느낌을 주므로 온화한 느낌으로 유도하기를 권하고 있다.

피부미용과 헤어스타일을 위한 얼굴분석을 목적으로 했던 황의순²²⁾도 얼굴형을 7가지 즉, 계란형(egg shape), 원형(round shape), 사각형(square shape), 긴형(oblong shape), 삼각형(triangle shape), 역삼각형(heart shape), 마름모형(diamond shape)으로 분류하였고, 각 얼굴형이 표준형인 계란형에 근접해 보이도록 하는 헤어스타일과 메이크업을 제안하였다.

〈표 1〉은 각 문헌에서 분류하고 있는 얼굴유형에 대한 명칭과 분류한 얼굴형의 수를 도표로 정리한 것이다.

〈표 1〉 각 문헌에 따른 얼굴유형별 명칭과 분류 수

저자	얼굴유형 수	얼굴유형별 명칭
Davis(1980)	7	타원형, 정사각형, 둥근형, 삼각형, 역삼각형, 마름모형, 직사각형
石原久代(1985)	4	각(各)형, 원(圓)형, 능(菱)형,란(卵)형
木會山 카네(1987)	6	타원형, 원형, 삼각형, 사각형, 마름모형, 역삼각형
Tate(1991)	4	타원형, 정사각형, 둥근형, 삼각형
이육희(1992)	4	둥근형, 네모형, 긴형, 역삼각형
김경순(1995)	7	계란형, 사각형, 둥근형, 삼각형, 역삼각형, 마름모형, 직사각형
이혜성(1996)	8	타원형, 사각형, 둥근형, 삼각형, 역삼각형, 다이아몬드형, 직사각형, 서양배형, 육각형

위와 같은 연구 내용들을 종합하면, 얼굴형은 주로 이마와 턱의 모양이나 얼굴의 길이와 폭의 관계에 의해 시각적으로 분류되고 있다. 그러나 각 연구자의 관점에 따라 얼굴유형의 명칭이나 그 분류집단이 다르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얼굴형에 대하여 보다 구체적이고 탐색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한편 성형학이나 미술헬부학 분야에서는 얼굴 부위에 대한 일련의 연구로서 시각적 판단뿐 아니라 생체계측이나 간접계측의 방법으로 얼굴을 연구해왔다. 이 분야에서는 안면에서의 계측치의 특성을 파악하거나 계측치에 의한 미의 기준을 분석하여 미적 가치의 성향을 계량적 측면에서 밝힘으로써, 조형예술 분야에는 얼굴의 객관적, 실증적 자료가 제시되었고, 성형학 분야에는 안면 성형을 위한 기초 자료로 이용되고 있다.

이 분야에서 진행되어온 얼굴에 관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먼저 1930년대에 일본인 해부학자들을 중심으로 한국인의 얼굴에 대한 체질인류학적 연구가 이루어졌으며 해방 후에는 한국인 연구자들에 의해 한국인에 관한 체질인류학적인 연구가 수행되었으나 한국인 얼굴 모습의 전체 상을 추정할 자료는 없고 연구분야와 목적이 달라 종합하여 비교, 분석하기가 어려웠다고 한다²⁵⁾.

지금까지의 한국인 얼굴부위의 계측치에 대해 살펴보면, 조용진²⁶⁾은 인류학적 방법을 적용하여 얼굴을 계량함으로써 한국인 남녀의 얼굴형상을 인류학적 접근을 통해서 파악하려 하였으며, 시각적 판단을 근거로 얼굴을 남성적인 얼굴과 여성적인 얼굴로 나누고 얼굴부위에서 총54항목을 생체 계측하여 그 계측치로 한국인의 안면미의식을 분석하였다.

Frakas²⁵⁾에 의하면 서양인의 얼굴계측치에서 얼굴길이가 18.61cm이고, 상안부 길이가 5.51cm, 중안부 길이가 6.27cm, 하안부 길이가 6.83인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1992년도 국민표준체위조사²⁶⁾에서 얼굴길이는 여자의 경우 18.6cm, 남자는 19.6cm였다. 귀구슬 사이 너비는 여자의 경우 14.0cm이었고, 남자는 14.7cm였다. 한국 청년의 미추관에 의한 생체계측학적 분석에서 미인형의 얼굴길이는 18.5cm였고 안최대폭은 14.5cm였다²⁷⁾. 또한 이동진 등²⁸⁾

이 성인여성을 대상으로 한 사진계측을 통한 안면 연구결과, 평균 얼굴폭은 13.6cm였고 얼굴길이는 18.1cm로 그 비가 1:1.33으로 나타났으며, 이경식²⁹⁾의 연구에서는 얼굴너비가 13.5cm, 얼굴길이가 18.2cm로 나타나 그 비는 1:1.35이었다. 위성신 등³⁰⁾의 연구에 의한 한국 미인의 평균 얼굴너비는 12.9cm, 얼굴길이는 18.6cm로 그 비가 1:1.44로써 일반 성인여성의 얼굴길이와 너비의 비에 비해서 한국 미인의 얼굴 길이가 더 긴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문헌에 제시된 얼굴부위의 계측치는 얼굴길이와 얼굴폭, 상안부, 중안부 하안부의 길이 얼굴길이 대 얼굴폭에 대하여 계측치와 지수치를 제시하고 있으나 얼굴형 파악을 위해서는 얼굴에서의 각도나 이마너비와 같은 얼굴형을 파악하는데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계측치를 더 파악하고 각 얼굴형에 대한 계측치 간의 차이를 확인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III. 연구방법 및 절차

1. 조사대상

성인 여성의 얼굴형을 분류하기 위하여 광주·진남지역에 소재한 대학의 여대생 201명을 편의 표집하여 얼굴정면 사진을 촬영하고, 동시에 직접계측을 실시하였다. 사진 촬영과 직접계측은 1995년 10월 8일에서 11월 16일 사이에 맑은 날 오전 10시에서 12시 사이와 오후 2시에서 4시 사이에 각 대학 의복구성실습실에서 실시되었다.

불완전한 자료를 제외한 167명의 사진자료가 얼굴유형의 분류를 위한 시각적 판단에 이용되었다. 대상자의 연령 분포는 <표 2>와 같다.

대상자의 나이는 19세에서 26세 사이에 분포되어 있으며 19세에서 20세가 조사대상자의 약 70%이상을 차지하였다.

2. 조사 방법

본 연구를 위해 대상자의 얼굴을 사진 촬영하였다. 사진은 시각판단용 사진과 계측을 위한 사진으로 분리하여 2가지를 동시에 촬영하였다.

1) 안면사진 촬영

<표 2> 얼굴유형분류를 위한 조사대상자의 연령분포

나이	빈도(%)
19	75(44.9)
20	51(30.5)
21	20(12.0)
22	13(7.7)
23~26	8(4.7)
총	167(100)

안면을 시각적으로 판단하고 간접계측하기 위해 사용된 기기 및 용구는 다음과 같은 용구들이 사용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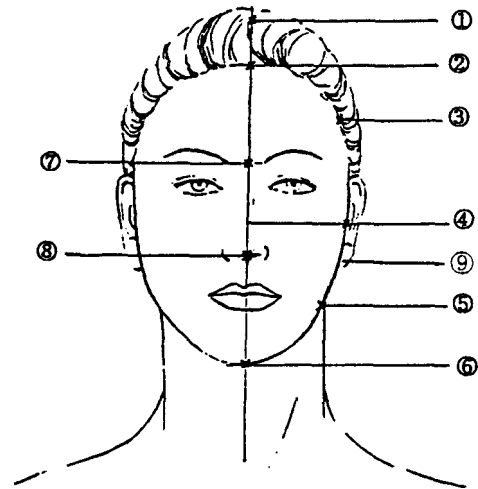
- 카메라(Nikon FM2)
- 필름(Iso / ASA 200)
- 삼각대 (triangular stand)
- 계측유리판: 500×500mm의 크기의 유리판이 붙어있는 150cm 높이의 계측대로써, 5mm 간격의 수직 수평선이 그어져 있고 1mm마다 점으로 표시가 되어 있어 인화된 사진 상에서 계측이 가능.

먼저 시각판단용 자료를 얻기 위하여 사진을 촬영하였다. 사진은 대상자에게 머리띠를 착용시켜 이마선 및 얼굴윤곽선이 잘 보이도록 하게 한 후 의자에 앉히고 계측용과 같은 조건에서 정면을 촬영하였다. 촬영시 렌즈는 50mm였으며 셔터속도는 T=1/60s로, 피사체에서 카메라까지의 거리는 2000mm로 고정하였으며, 카메라의 높이

는 바닥에서 피사체의 평균 앉은키 높이인 1000mm로 하고 앉은키에 따라 높이를 조절하였다. 계측용 안면사진은 이동진³¹⁾의 연구를 참고로 하여 제작한 계측용 유리판을 대상자의 비침점에 일치하고 눈금이 잘 보이도록 반사광이 없는 방향에서 촬영하였다.

2) 계측방법

성인여성의 얼굴부위에 대한 계측자료를 얻기 위하여 이동진 등³²⁾, 위성신 등³³⁾, 김경숙 등³⁴⁾의 연구를 참고로 얼굴부위의 계측에 필요한 기준점과 계측항목을 결정하고 계측을 실시하였다. 계측은 5×8 인치 크기로 인화된 정면(full front figure)의 안면사진을 이용하여 계측자에게 계측



<그림 1> 계측점

<표 3> 계측점

1. 머리마루점(vertex) : 머리부위의 정중선에 있어서 최고점
2. 이마시작점(trichion) : 이마중앙의 머리카락이 나기 시작한 점
3. 옆이마점(frontotemporale) : 옆이마에서 머리가 나기 시작한 점
4. 뺨끝궁점(bizygion) : 얼굴폭이 최대가 되는 지점
5. 하악각점(gonion) : 아래턱 양쪽의 맨바깥 끝점
6. 턱끝점(menton) : 정중선상에서 아래턱의 가장 아래쪽 두드러진 점
7. 미간점(glabilla) : 정중선과 양미간선이 교차되는 점
8. 하비점(subnasale) : 정중선과 코의 중심점이 만나는 점
9. 귀구슬점(trigion) : 이주연골부위의 가장 위쪽으로 두드러진 점에서 바깥아래 끝부분

점을 인지시키고 계측연습을 실시한 후 실제계측에 임하게 하였다.

계측점은 <표 3>, 계측항목은 얼굴의 정면을 기준으로 한 직선간의 거리를 계측한 것으로 <표 4>에 제시하였고 얼굴길이대 얼굴폭의 용모안지수의 지수치를 계산하여 제시하였다. <그림 1>은 계측점, <그림 2>는 계측항목에 대하여 제시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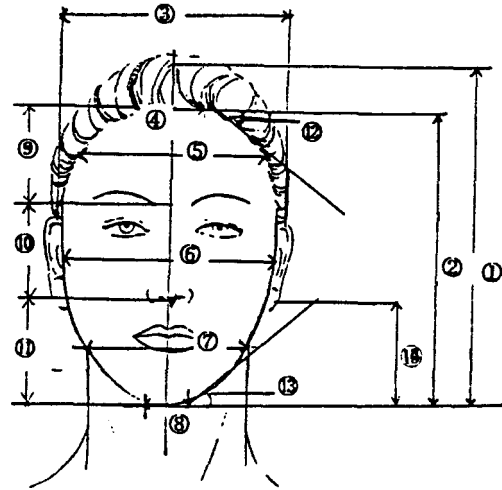
3) 시각적 판단에 의한 얼굴유형 평가

얼굴 유형을 시각적으로 판단하기 위하여 먼저

<표 4> 계측항목

1. 머리길이: 머리마루점에서 턱끝점까지의 직선거리
2. 얼굴길이: 이마시작점에서 턱끝점까지의 수직거리
3. 머리너비: 머리 양쪽 가장 두드러진 지점간의 직선거리
4. 이마시작폭: 이마가 시작되는 부위의 수평거리
5. 이마너비: 이마 좌우 발제선간의 직선거리
6. 얼굴폭: 좌우 관골궁 꺾외측점까지의 수평거리
7. 하악각간폭: 좌우 하악각점간의 수평거리
8. 턱결절간직선거리: 턱끝점에서 직선적 수평거리
9. 상안부길이: 이마시작점에서 미간점까지의 수직길이
10. 중안부길이: 미간점에서 하비점까지의 수직길이
11. 하안부길이: 하비점에서 턱끝점까지의 수직길이
12. 이마각: 이마시작선 끝점에서 얼굴외곽선 사이 각도
13. 아래턱끝각: 턱결절간 직선거리의 끝점에서 얼굴외곽선과의 사이 각도
14. 귀구슬점-턱끝점길이: 이주점에서 턱끝점까지의 수직길이
15. 키

* 지수 항목 : 얼굴길이 / 얼굴폭 (용모안지수)



<그림 2> 계측항목

예비조사를 실시하였다. 의류학 전공자인 9명의 예비판단자에게 시각판단용 사진을 이용하여 자유롭게 분류하게 하였고 각 분류된 집단의 개인별 분류기준을 기록하게 하였다. 그 결과 전체 예비판단자들은 사진자료에서 얼굴길이, 이마형태, 턱의 형태, 협골의 돌출 정도 등의 기준으로 얼굴유형을 판단하게 되었고 7개 유형으로 분류되었을 때 각 판단자간의 이견이 가장 적었으며 그 일치도도 높았다. 그러므로 예비조사와 남윤자²⁾의 연구를 참고로 관련분야의 전문인 평가단을 구성하였다. 평가단은 얼굴형에 대한 시각적 차이를 비교적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 의과대학 성형외과의 악안면전공자, 피부피용과의 베이킵 전공자, 헤어전공자, 의상디자인과의 디자인전공자, 의상사회학 전공자 각 1명씩 총 5명으로 구성되었다.

3. 분석방법

시각적 판단에 의한 얼굴유형의 분류는 평가자 5인이 평가한 7가지 얼굴형에 대하여 빈도와 백분율을 구하였다. 또한 조사대상자의 얼굴부위에 대한 계측부위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하였으며 각 얼굴유형간 계측치의 차이를 파악하기 위해 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자료의 분석을 위하여 통계분석 패키지인 개인용 컴퓨터의 SAS Ver. 6.04를 사용하였다.

IV. 결과 및 고찰

1. 시각적 판단에 의한 얼굴유형 분류

평가단의 시각적 판단에 따라 조사대상자의 얼굴형은 7가지 유형으로 분류되었으며, Davis³⁶⁾의 얼굴유형과 같이 명명되는 것이 가장 적합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따라서 얼굴유형은 각각 장방형(oblong shape), 계란형(egg shape), 둥근형(round shape), 사각형(square shape), 역삼각형(inverted triangle shape), 마름모형(diamond shape), 삼각형(triangle shape)으로 명명하고 각각의 분포를 파악하였다.

〈표 5〉는 시각적 판단에 의해 분류된 각 얼굴형의 빈도와 백분율을 나타낸 것이다. 이는 조사대상자 167명의 얼굴형을 판단하였을 때 평가단 5인중 4인 이상의 평가가 일치하였던 얼굴형을 같은 범주로 분류하여 정리한 결과이다. 조사대상자중에서 평가단의 일치도가 낮았던 50명(29.5%)을 제외한 117명의 얼굴에 대한 평가단의 시각적 판단이 일치한 것으로 나타나, 70.05%의 일치도를 보였으며 남윤자³⁷⁾의 연구에서 체형을 시각적으로 판단하는 경우의 일치도가 86.5%이었던 것인데 비해 약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체형의 유형은 크기 요인에 따라 분류될 수 있는데 비해 얼굴형은 체형에 비해 각 계측치의 차이에 대한 분산의 차가 크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보

〈표 5〉 각 얼굴유형의 인원분포 (n=117)

얼굴유형	빈도(%)
장방형	33(28.3)
계란형	30(25.7)
둥근형	28(23.9)
사각형	15(12.4)
역삼각형	6(5.3)
마름모형	4(3.5)
삼각형	1(0.8)
합계(%)	117(100)

인다.

각 얼굴유형의 빈도를 살펴보면 장방형이 28.3%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고 다음으로 계란형이 25.7%, 둥근형이 23.9%의 분포로 나타난 것으로 보아 이들 세 가지 얼굴형이 가장 빈번하게 보여지고 있는 얼굴유형임을 알 수 있었다. 이는 한국 성인여성의 얼굴이 둥글다는 일반적인 인식과는 다른 결과를 보이고 있으며 오히려 장방형과 계란형의 얼굴이 둥근형보다 많이 분포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사각형, 역삼각형, 마름모형의 경우, 각각 12.4%, 5.3%, 3.5%로 나타났으며, 삼각형은 1%미만의 분포를 보이고 있다. 이 중에서도 역삼각형, 마름모형, 삼각형의 얼굴형은 전체 대상자의 10% 미만으로 나타나고 있어 성인 여성에게 있어 그다지 흔치 않는 얼굴유형임을 알 수 있었다.

얼굴형과 네클라인과의 조화 관계를 연구한 문남원의 연구결과³⁸⁾에서, 역삼각형의 얼굴형이 심미적으로 높이 평가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역삼각형에 대한 인식이 달라지고 있다고 추정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보다 깊은 연구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2. 얼굴부위 계측치의 분석결과

1) 성인여성의 얼굴부위의 계측치 분석

시각판단에 의해 분류된 얼굴유형사이에 계측치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이다. 먼저 얼굴부위에 대한 계측치에 대한 평균과 표준편차를 보면 〈표 6〉과 같다.

성인여성의 얼굴길이는 평균 18.16cm로 이경식이 연구한 한국 여자 청년의 평균치인 18.24cm, 나세진 등의 제주도 여성의 평균치인 18.03cm와 큰 차이는 없었으나 위성신, 조용진 등의 평균치인 18.60cm보다는 짧은 것으로 나타났다. 얼굴폭은 13.13cm로 나타났으며 이는 이경식, 나세진의 13.48cm, 13.65cm보다는 작고 한국미인의 평균치인 12.95cm보다는 넓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상안, 중안, 하안부 길이의 평균은 5.74, 6.20, 6.30으로 하안부의 길이가 가장 길게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박종섭³⁹⁾등의 연구에서 나타난 5.87, 6.37, 6.35의 여성적인 여자의 계측치와는

<표 6> 얼굴부위 계측항목의 평균과 표준편차 (n=167)

항 목	평균	표준편차
머리길이	21.48	1.14
얼굴길이	18.16	0.79
머리너비	15.59	0.86
아마시작폭	2.94	0.85
이마너비	12.30	1.39
얼굴폭	13.13	0.46
하악각간폭	10.67	1.33
턱결절간 직선거리	3.48	1.55
귀구슬점-턱끝점길이	8.28	1.06
상안부 길이	5.74	0.55
중안부 길이	6.24	0.57
하안부 길이	6.30	0.51
이마각	42.65	10.47
아래턱끝각	42.77	4.86
키	159.6	5.13
용모안지수(얼굴길이 / 얼굴폭)*	1.38	0.06

단위 : cm, * : 지수항목

비슷하지만, 5.66, 6.46, 6.73의 남성적인 여자와는 다른 계측결과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결과에서 볼 때 평균적인 여성의 상안, 중안, 하안의 길이에서 상안이 짧고 하안이 긴 것을 알 수 있다.

지수치에 있어서 먼저, 얼굴길이/얼굴폭의 비인 용모안지수는 1.38로 이동진의 1.33보다 크고 Frankas의 13.9와는 비슷하고 위성신의 한국미인의 지수인 1.50보다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2) 얼굴유형에 따른 계측치 차이 분석

본 연구에서 시각적 판단에 의해 분류된 7가지 얼굴유형중 빈도가 매우 낮다고 모여지는 삼각형의 얼굴유형을 제외한 나머지 6개 유형을 집단 변수로 하여, 각 유형간 얼굴 계측치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분산분석하였다. <표 7>은 각 얼굴유형별 계측치와 지수치를 분산분석한 결과이다.

<표 7>에 의하면, 이마너비, 얼굴길이/얼굴폭의 지수인 용모안지수는 $p < .001$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얼굴폭, 아래턱끝각,

키의 계측항목에서 $p < .01$, 귀구슬점-턱끝점, 이마시작폭, $p < .05$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Duncan의 사후 검증 방법을 통해 얼굴유형별 각 계측치의 평균을 비교해 보면, 이마너비에서는 사각형의 얼굴형이 가장 넓고 계란형과 장방형의 얼굴형이 가장 좁은 이마너비를 보여주고 있다. 얼굴폭에서도 사각형이 가장 넓고 직사각형은 가장 좁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아래턱끝각은 역삼각형이 가장 크고 장방형이 가장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역삼각형의 얼굴이 턱부위가 다른 얼굴형에 비해 더 뾰족한 것을 의미한다. 귀구슬점-턱끝점길이는 마름모형의 얼굴형이 가장 길고 둥근형의 얼굴이 짧은 것으로 나타났다. 얼굴길이대 얼굴폭의 용모안지수에서는 장방형과 계란형, 역삼각형의 얼굴형이 1.40이상의 지수값을 나타내고 있어, 넓이대 폭의 비가 일반적으로 안정감을 주고 아름답다고 여기는 수치를 지니고 있으며 사각형의 얼굴형이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사각형의 얼굴형은 넓이가 가장 넓은 얼굴형인 것을 알 수 있었다. 얼굴길이는 장방형, 역삼각형, 계란형의 얼굴형이 길고 사각형은 짧은 얼굴길이 분포를 보이고 있으나 유의한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각 얼굴유형별 집단은 키의 항목에서도 $p < .01$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여 주고 있다. 장방형과 마름모형의 얼굴을 가진 사람이 키가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얼굴길이와 키가 유의한 상관성이 있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결과로 볼 때 이마의 너비, 얼굴길이/얼굴폭, 얼굴폭, 귀구슬점-턱끝점길이, 아래턱끝각이 얼굴유형의 시각적으로 분류하는데 분류기준이 되었을 것으로 사료된다.

3) 문헌의 얼굴유형별 분류기준과 계측치에 의한 차이와의 관계

얼굴유형별 계측치의 결과를 바탕으로, 얼굴형에 대하여 문헌에서 제시되고 있는 각 부위에 대한 분류기준과 계측치에 의한 각 유형간의 차이를 비교하여 <표 8>에 제시한 것이다.

<표 8>에서 보면, 문헌상에 나타나고 있는 얼굴유형시 분류기준은 얼굴길이, 얼굴폭, 이마형태, 턱의 형태, 험골궁의 들출 정도와 그것들을

<표 7> 얼굴유형에 따른 계측치 차이

(n=117)

항 목	얼굴 유형						F값
	계란형	마름모형	역삼각형	장방형	등근형	사각형	
머리길이	21.65	21.95	20.43	21.79	21.11	21.62	2.00
얼굴길이	18.22	17.95	18.39	18.48	18.04	17.70	2.07
머리너비	15.43	15.07	15.83	15.43	15.74	15.92	1.11
이마시작폭	2.71 b	2.40 b	3.01 b	3.12 b	2.76 b	3.31 b	2.17*
이마너비	12.09 c	12.05 c	12.66 ab	12.19 c	12.47 bc	13.05 a	9.68***
얼굴폭	12.95 ab	13.40 ab	13.10 ab	12.96 ab	13.28 ab	13.47 a	3.73**
하악각간폭	10.53 ab	10.00 b	10.40 ab	10.77 ab	10.65 ab	11.33 a	1.20
귀구슬점-턱끝점길이	8.36 ab	9.20 a	7.88 ab	8.59 ab	7.82 b	8.30 ab	2.42*
상안부 길이	5.81 ab	5.42 b	6.06 a	5.82 ab	5.75 ab	5.49 ab	1.47
중안부 길이	6.28	6.60	6.55	6.16	6.22	6.18	0.78
하안부 길이	6.33	6.00	5.95	6.42	6.25	6.21	1.28
이마각	45.51	39.50	41.66	43.09	41.11	41.00	0.68
아래턱끝각	45.20 a	44.25 ab	40.50 b	43.21 ab	41.85 ab	40.71 ab	3.16**
키	159.25 ab	162.00 a	157.65 dB	161.95 a	160.03 dB	156.02 dB	3.24**
자수: 얼굴길이/얼굴폭	1.40 ab	1.33 c	1.41 a	1.41 a	1.35 bc	1.31 c	9.25***

*** p<.001, ** p<.01, * p<.005.

던컨의 검정결과 p≤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는 유형간의 차이를 서로 다른 문자로 표시하였으며, 문자의 순서는 점수의 크기순과 같다.(a>b>c)

이은 외곽선, 얼굴의 3등분한 각 상안, 중안, 하안의 길이이다. 그런데 비해 계측치에 의해서 각 얼굴형간에 차이가 나타난 항목은 얼굴폭, 턱끝각, 얼굴길이 대 얼굴폭, 이마너비의 부위이다. 이러한 결과로 볼 때 분현의 분류기준에 대한 설

명과 얼굴형별 계측부위간의 차이가 대체로 일치되고는 있으나 얼굴형을 설명하는데 있어 계측치가 세부적인 부분에서까지 설명되지는 않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표 8> 문헌의 얼굴유형별 분류기준과 계측치간 차이 여부

얼굴유형	문헌	분류기준설명	계측치에 의한 차이 여부			
			얼굴폭	턱	얼굴길이 / 얼굴폭	이마너비
장방형	Davis	얼굴이 좁고 길며 각짐.	평균적	각이 완만함.	상대적으로 길다.	좁다.
	이해성	하안, 중안, 상안의 길이가 같고 이마가 수평적이며 턱이 들출됨.				
	김경순	전체가 길어 보임.				
계관형	Davis	얼굴의 가장자리가 매끄러움. 너비대 길이가 1:1.5	평균적	평균적	상대적으로 길다.	좁다.
	이해성	중안이 넓고 하안이 짧음, 이마와 턱이 등글고 곡선적				
	김경순	표준적임.				
둥근형	Davis	뺨, 턱, 이마가 등글고 길이가 짧음.	넓다.	평균적	상대적으로 짧다.	좁다.
	이해성	중안이 넓고 상안, 하안이 비슷.				
	김경순	등글고 살편 형.				
사각형	Davis	길이가 짧고 이마가 넓음, 뺨이 직선적이고 아래턱이 각짐.	넓다.	각이 완만하다.	상대적으로 짧다.	평균적
	이해성	직사각형과 비슷하나 얼굴길이와 너비가 같음.				
	김경순	얼굴폭과 길이가 비슷, 하악이 튀어나옴.				
역삼각형	Davis	얼굴이 좁고 턱이 뾰족, 이마가 수평적이고 좁음.	평균적	턱끝각이 뾰족하다.	상대적으로 길다.	넓다.
	이해성	상안이 넓고 하안이 좁음, 이마가 수평적				
	김경순	이마넓이가 턱넓이보다 넓음.				
마름모형	Davis	이마가 좁고 턱이 뾰족하고 광대뼈가 들출됨.	넓다.	평균적	상대적으로 짧다.	좁다.
	이해성	중안이 넓고 튀어나와 보임.				
	김경순	광대뼈가 들출되고 이마가 좁고 뾰족함.				

V. 요약 및 결론

본 연구는 신체의 부위 중 다른 사람에게 맨 처음 지각되는 신체적 특성이며 복식의장의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부위인 얼굴에 대하여, 복식의 형태적 측면과 더욱 관련있게 작용하는 얼굴형을 연구의 요인으로 설정하고, 경험적 절차를 거쳐 성인여성의 얼굴유형을 파악하고 그 계측치적 특성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먼저 167명의 여대생의 얼굴유형을 전문가 평가단을 구성하여 시각적 판단에 의해 분류하고 조사대상자의 얼굴부위를 계측하였다.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시각적 판단에 의해 분류된 얼굴유형은 장방형, 계란형, 둥근형, 역삼각형, 사각형, 삼각형, 마름모형의 7가지 유형으로 나타났다.
- 얼굴유형은 장방형(28.3%), 계란형(25.7%), 둥근형(23.9%), 사각형(12.4), 역삼각형(5.3), 마름모형(3.5), 삼각형(0.8)의 순으로 분포되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 시각적으로 분류된 얼굴유형에 따라 계측치의 차이를 살펴보면, 이마너비, 얼굴길이/얼굴폭의 지수인 용모안지수는 $p < .001$ 수준에서, 얼굴폭, 아래턱끝각, 키의 계측항목에서 $p < .01$ 수준에서, 귀구슬점-턱끝점, 이마시작폭, $p < .05$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또한 문헌에서의 분류기준과 분류된 얼굴유형의 계측치의 통계적 차이는 대체로 일치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는 광주 전남지역의 여대생만을 중심으로 얼굴을 분석하였다는 제한점을 지닌다.

추후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얼굴형에 대한 이미지나, 얼굴요인 중 얼굴 세부의 형태적 특성이나 그 형태별 이미지, 각 부위별 크기 등의 특성과 매력성과의 관계, 각 문화에 따른 얼굴의 선호 유형 등이 연구될 수 있는 요인이며 복식의 요인이 더해져 다각적으로 연구되었을 때 인체와 의복과의 관계가 보다 잘 정립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참고문헌

1. Cunningham, M. R., Measuring the physical in physical attractiveness- Quasiexperiments on the sociology of female facial beauty,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0, pp.925-935, 1986.
2. 나세진, 장신효, 백상호, 나봉식, 제주도 한국인 성인의 체질인류학적 연구, *의학계* 2(1), 1972.
3. 조용진, 현대 한국청년들의 안면미의식에 대한 생체계측학적 연구, *미술논문*, 3002, 집문당, 1988.
4. 조대환, 함기선, 조용진, 한국청년들의 미추관에 대한 생체계측학적 연구, *대한성형외과학회지*, 16(6), pp.926-925, 1989.
5. 이동진, 이우경, 김수신, 백세민, 정진은, 한국성인 여성의 안면부에 대한 사진계측학적 연구, *대한성형외과학회지*, 16(3), pp. 423-431, 1989.
6. 이경식, 한국인 여자 청년의 생체계측학적 연구, *최신의학*, 5(3), p. 93, 1962.
7. 이해성, 『메이크업』, 정문각, pp. 21-33, 1996.
8. 김경순, 『Make up』, 청구문화사, pp. 68-75, 1996.
9. 大防有夫, 顔と魅力, *纖維製品消費科學會誌*, 36(11), pp. 661-666, 1995.
10. 이선경, 고애란, 남성복 착용자의 의복유형과 얼굴의 매력성이 인상에 미치는 연구(Ⅱ)- 직업관련특성 및 의모특성 추론을 중심으로 -, *한국의류학회지* 19(2), pp. 565-579, 1995.
11. 이선경, 고애란, 남성의복착용자의 의복유형과 얼굴의 매력성이 인상에 미치는 영향(1)- 직업추론 및 의복인상을 중심으로, *한국의류학회지* 19(2), pp. 230-241, 1995.
12. 문영보, 의복 및 얼굴변인이 인상형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중앙대 박사학위논문*, 1991.
13. 도주연, 권영숙, hairstyle 변화에 의한 얼굴 이미지 요인과 분석, -Computer Graphic Si-

- mulation을 이용하여-, 한국의류학회지, 16 (3), 1992.
14. 石原久代, 板原きみえ, 着裝子の顔面形態的要素と服装色との聯關性, 纖維製品消費科學會誌, 26(1), 1985.
 15. Sharon Lee Tate, Fashion Handbook, Harper Collins Publishers, p. 104, 1991.
 16. Marian L. Davis, Visual Design in Dress, Prentice Hall Inc., Englewood Cliffs : New Jersey, pp. 83-86, 1980.
 17. 木曾山カネ, 服装造形のためのデザイン, 東京東門書院, pp. 152-154, 1987.
 18. Tate, Sharon Lee, 앞의 책, p. 104.
 19. 石原久代, 앞의 책, pp. 33-40.
 20. 이해성, 앞의 책, pp. 21-33.
 21. 김경순, 앞의 책, pp. 68-75.
 22. 황의순, 미용학개론, 청구문화사, 1996, pp. 185-189.
 23. 한국인의 얼굴, 국립미술박물관, 신유문화사, 1994, pp. 175.
 24. 조용진, 앞의 책, p. 8.
 25. 이동진 등, 앞의 책, p. 428.에서 재인용; FrakasL. G., Herczko, J. C., and Munro, I. R.: Vertical and horizontal proportions of the face in young adult North American Caucasians.; Revision of Neoclassical Canons, Plas. Reconstr. Surg., 75, p. 328, 1985.
 26. 공업진흥청, 국민체위조사보고서, p. 69, 1922.
 27. 조대환 등, 앞의 책, pp. 926-925.
 28. 이동진 등, 앞의 책, pp. 423-431.
 29. 이경식, 앞의 책, p. 93.
 30. 위성신 등, 앞의 책, pp. 283-289.
 31. 앞의 책, 1989, pp. 423-431.
 32. 이동진 등, 앞의 책, pp. 423-431.
 33. 위성신 등, 앞의 책, pp. 283-289.
 34. 김경숙·이춘계, 평면사진계측에 의한 여중생의 체형분석, 한국의류학회지, 14(3), pp. 208-215, 1990.
 35. 남윤자, 여성상반신의 측면형태에 따른 체형 연구, 서울대 박사학위논문, pp. 24-29, 1991.
 36. Marian L. Davis, 앞의 책, pp. 83-86.
 37. 남윤자, 앞의 책, p. 29.
 38. 문남원, 김옥진, 얼굴유형과 의복 네클라인과의 조화 연구, 복식, 35호, pp. 305-32, 1997.
 39. 박종섭, 함기선, 조용진, 안면인상에 대한 계측학적 연구, 대한성형학회, 16/6, pp. 920-925, 1989.